

명사칼럼

대학도 글로벌스탠더드 시급하다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063-270-2001

건국 60년, 우리나라의 지난 60년은 기적의 역사가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나라를 세운 후에도 세계의 열강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국토는 폐허가 됐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대했다.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경제규모는 750배나 커졌고, 1인당 국민소득도 300배 넘게 늘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만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100개를 넘어섰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기업 제품부터 오토바이용 헬멧, 자진거용 신발 등 중소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은 45.1%, TFT-LCD는 46.5%에 이르고, LNG 운반선은 무려 63.0%를 차지했다. 선박용 대형 디젤엔진(59.6%)과 플래시 메모리(41.1%), 에어컨(22.3%) 등도 세계 시장 순위 품목으로 꼽혔다.

지난해 3월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잘 보여

준다. 골드만 삭스는 2050년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4조830억 달러에 이르고, 1인당 GDP는 9만 달러가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불과 1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최부국이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저력, 그러나 대학은...

이처럼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국가이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부러워하며 학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것만큼은 세계의 표준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대학 얘기다. 세계의 주요 기관들의 세계 대학 평가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실적 수준을 의심케 한다.

최근 상하이자오퉁대학이 발표한 세계 500대 대학 중 10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서울대가 200위권 이내에 들었고, 500위권에도 8개 대학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100대 대학에 도쿄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이, 500대 대학에 31개 대학이 이

함을 올렸다.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대학도 30개 대학이 500대 대학에 포함됐다.

2007년 영국의 '더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도 마찬가지다. 200대 대학을 선정한 이 평가에서 서울대는 51위였고, 카이스트는 132위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이름은 단 2개뿐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1개 대학(도쿄대 17위, 교토대 25위, 오사카대 46위 등), 중국은 6개 대학(베이징대 36위, 칭화대 4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홍콩도 4개 대학이 순위에 들어 우리보다 앞섰다. 2006년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도 일본은 5개, 홍콩이 3개, 싱가포르가 2개 대학이 포함됐으나 우리나라는 단 1개도 없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의 대학교육 경쟁력 평가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로 최상위 수준이었지만 대학교육 경쟁력, 즉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물론이나 다름없는 53위였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대학 경쟁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고, 현재의 기준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상하이자오통대학의 경우 노벨상과 수학분야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동문수, 노벨상과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진 등 노벨상 수상 경력에 30%의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더 타임즈는 1,300여명의 '동료 교수 평가'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초로 국가별 교육·과학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의 경우 기업인들에게 대학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평가한다. 이처럼 각 기관의 주요 평가항목이 다

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가 세계인들에게 명문 대학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평가결과를 냉정히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의 거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길

대학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학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모든 조직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식이 부의 원천인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곧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것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7.6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5.8명의 2배에 이르며, 하버드대, 도쿄대 등 10명 미만인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교수 확보율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 확보율은 76.1%로, 법정 정원보다 5천여 명이나 부족하다. 지난 10년 간 2천600여명 늘었는데 그쳤고, 지난 2년간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대학 재정 역시 빈약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31조원이었는데, 그 중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0.6%에 불과했다. 반면 OECD 30개국 평균은 1.1%에 이른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투자가 초·중등 교육에 비해 극히 미비하다는 뜻으로, 이래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이런 데도 내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심의해 올해보다 3천억 원이나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기적인 확충도 모자랄 판에 삭감이라니 참으로 우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할 우리 대학의 환경이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때문에 대학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수들 확충하려 해도 돈이 걸리고, 교육시설과 첨단 교육기자재를 갖춰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용하려 해도 돈이 필요하다. 우수 학자들을 유치해 훌륭한 연구 실적을 내도록 연구 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정부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발전기금 등 기부금 모금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수 TO를 늘리고, 교육 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대학도 폐쇄적인 상아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 내부적으로 경쟁 구도를 도입해 '선택과 집중'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교육이 내실화하고, 연구가 활발해 진다. 다행히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고 있다. 대학 자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연구 실적이 부족한 교수는 결국 엔퇴출이라는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도 형성

되고 있다. 학부 교육도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키우고 있고, 심지어 졸업생 A/S제 또는 리콜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이 세계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가야 할 길이 멀다. 연구 시스템의 혁신과 국가·대학·기업이 연계된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문 능력을 갖춰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길러야 한다.

해외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도 시급한 과제다. 세계 명문 대학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교수와 글로벌 인재들을 뽑기 위해 막대한 노력과 시금을 투자하고 있다. 유능한 교수진과 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대학 경쟁력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간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학들도 국제화를 강조하며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구호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부 특성에 맞는 원어 강의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는 기본이며 외국인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숙사나 교육 커리큘럼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국내 대학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렵고 험난한 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스스로의 철저한 질 관리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의 표준이 되려면 정부와 사회, 그리고 대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대학을 지원해야 하고, 대학은 지식과 인력을 제공하는 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국내 대학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드는 길이다.

| 기술표준 2008 9